東亞日報
夕刊
七月九日(月)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東亞日報社 發行所

英佛提携約束은 歐洲의 不安을 助長

佛國提議에 對하야 英은反對

◇注目되는英佛會商

【倫敦八日發聯合】 九月早日에 開催되는 英佛會議의 主題는 …

白耳義王國의 永世中立擁護

佛政府의 提案主題

【倫敦八日發聯合】 小協商諸國 …

主力艦均勢原則의 削除斷行을 主張

佛、海軍軍縮會議方針

【倫敦巴里七日發】 佛政府는 …

英佛代表交驩

巴里리아驛頭

【倫敦八日發聯合】 外相 …

獨逸寸土라도

佛國에蹂躪될리없다

新興獨逸精神發揚

獨無任相 헤쓰氏熱辯

【伯林八日發】 이地方大會에 臨하야 …

今後岡田新內閣의 對軍縮根本方針

大體前內閣政策踏襲

【東京電話聯合】 岡田新內閣에 …

一、日本은 …

早大統領 비진島에

【와싱톤八日發】 …

蘇聯側에서提出한 不可侵條約失敗

紐育타임스紙報道

【紐育七日發聯合】 …

蘇國、提議否定

타스通信社報道

七回蘇聯邦大會

明年一月十五日招集

世界아르族 反蘇運動熾烈

秦皇、山海關驛 旅客貨物課稅

七日正式發表

【北平八日發聯合】 …

臨時議會召集

衆議院解散斷行?

◇岡田內閣使命의重大

【東京電話】 岡田新內閣은 …

重要外交方針

初閣議後廣田外相談

歷代內閣의 組閣時間

最速과最遲

濱口內閣	五時間
西園寺內閣(第一次)	一日間
加藤(高明)內閣	二日間
加藤(友三郞)內閣	二日間
田中內閣	二日間
犬養內閣	三日間
西園寺內閣(第二次)	三日間
濱口內閣	四日間
大隈內閣	四日間
岡田內閣	四日間
桂內閣(第二次)	五日間
寺內內閣	六日間
山本內閣(第二次)	六日間
若槻內閣	六日間
桂內閣(第一次)	八日間
山本內閣(第一次)	八日間

"假面을쓴新內閣"

官僚主義의發露

政友對內閣態度表明

【東京電話】 政友會는 新內閣에 對하야 …

近衛公을拓相으로

拓務存續方針?

某方面과는諒解成立

首相事務引繼

金森德次郞氏決定

法制局新長官

津島理財局長

大藏次官內定

政民政策協定

卽時破棄를決定

政友會有志代議士會

床次派와聯繫

黨勢擴張을計劃

◇民政黨의今後態度

政友系政務次官

候補者의人物

總理大臣秘書

蘭印各地視察

報告書提出

一般消費者大不滿

橫說竪說

東京音頭 12卷

優美館 空中幽靈 全十四卷

東道 日本版

第一劇場

百圓確實成功法

루-도리포 꽃을잡고 遠浦歸帆

돈버리 石橙製作所

內科專門 入院隨意

物理醫療士 生徒募集 京城電氣醫療學院

朝鮮紙物各種 製紙原料各種 朝鮮湖南線江景邑中町 朝鮮產業株式會社 販賣部 電話一〇五番

東洋染織株式會社

平壤에洪水騷動 三千餘戶가浸水

普通江增水가二十尺以上 各線列車도一時不通

【평양지국전화】 평양지방에는 八일오후二시五十六분부터 호우가쇄래하야 동六시까지에 벌서 二三미리六(한평에약二석八두五승)의 폭우가쏟아저 보통강(普通江)의 증수량은 六미돌四十(二十尺一寸)에 달하야 서성리(西城里) 一대에는 침수가옥이 三천여호에 달하고 교외선전차는 한동안 불통되엇고 시내전차는 밤열시가지나도록 불통의상태에빠저 그피해는 심대한모양이다.

그리고 철도는 경의선본선평양, 서평양간과 서평양, 서포(西浦)간에 세곳이나 선로가 결궤되고 노반이 유실되어 이때문에 진행중이던 제八一七열차는 가도오도 못하엿으며 여객三十여명은 도보로 평양까지 다시도라왓고 제二열차(부산행까지)도 서포역에정차, 평남선(平南線)에서도 [illegible] 평양가서로 여러곳이 침수되엇고 도사동사도로도 침수결궤되엇다. 제六九열차는 운전이불능케되어 평양에서 구원열차를 꾸미어 三十여명의 여객을 수송하엿고 기타평양평양간에는 임시열차를 편성하야 평양정거장은 일대소동중이다.

京義急行二個旅客車 降雨中에꼼작못해 今朝에야겨우開通

西朝鮮水害와 鐵道局發表

【철도국발표】 八일오후 六시경에 수해의 현장에 도착한 부산행 제二열차와 밤十一시현장에 온 안동행급행열차 一〇二여객열차와 또 九일오전三시 그곳을 통과하는 부산행여객제六열차는 드디어 서포역에 막히어잇어 평양철도 사무소에서는 개원이 남행하야 극력복구에 노력한결과 九일오전六시 三十분에 일단 개통되어 전기 三개의여객열차는 동七시十분에 현장을 간신히 통과하엿다.

평양역에서는 제一〇二열차는 히까리호에 연락하야 남행하엿으므로 경성이에는 정오경에 도착할 예정이라 이것을 기다려 부산행 제八열차에 접속하야 부산으로 향하게되엇다.

또 전기三개열차중에 경성을 통과하는 히까리와 제六열차는 가비파 오늘아침에 각각경성에서 출발하엿다.

价川線도不通

평양 경의선이외에 개천부선 평양개천(价川)간은 八일 오후六시이래 불통되어 九일오전二시경에 야간신의복구되엇고 또개천철도안주 북송리(安州北松里)간은 八일밤부터 불통케되엇는데 지금같아서는 언제복구될지 가망이보이지안는다.

慶北高等課長 突然上京活動

警務局과某事件協議

경북 경찰부 나전(羅田)고등과장은 금일 아침에 입경하야 경무국에서 경무과 사무과 보안과를 방문하고 보안과장과 특별계 주무와 모사건에 관하야 협의를 하엿다. 사건과 장시간에 궁한 협의의 내용은 자세치 못하나 현재 경북에 검거취조중에잇는 모사건의 경과보고와 금후처치에 관한것을 보고협의한것이라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다른방면으로 확대될는지도 모른다고한다.

山鄕·水國의 하로 하로

—8○8(紙上紀行詩)8○8—

㉔ 金剛山……(鷺山人)

府民이消費한 生鮮代十萬圓

六월중 경성부내에서 소식한 생선은 七만八천 五백七十九관으로 그가격은 九만九천五백二十六원十一전이엇다.

이를 작년六월중 六만七천一백四관에 그가격 八만八천三백六十九원二十六전에 비하면 一만一천 四백七十五관 이 그금액에 잇어서는 一만一천 一백五十六원八十五전이 각각 증가되엇다.

이로 보면 금년六월중의 一관 평균가격은 一원二十六전七리 작년六월중의 一관평균가격은 一원三十一전七리이엇다.

同志被告屍體奪還等 事實을全部是認

元山서간家族親知等多數傍聽

元山콩그룹事件公判

【함흥지국전화】 원산공산그룹에대한 사건의 제一회공판은 기보와같이 함흥지방법원에서 九일 오전十시 어원성(御園成)판사의 주심과 대판(大阪)검사의 입회로 개정하야 김헌재(金顯濟) 송병진(宋炳珍) 아인호(安仁浩) 등三명의중 신인필(?) 원산독서회 조직사건과 김형산(金炯山)의 시체탈회사건, 삐이데이기념사건 등에대하야 다같이 승인하고 최래진(崔泰鎭) 오유선(吳柔善) 등 양명은 사실을 부인하고 十二시경에 휴정하엿는데 속개는 오후一시부터이다.

二十여명의 가족이 원산서와서 방청하엿고 그밖에 중요한인물의 지시정도로 몽영을 요하지 안엇는데 테드를계보든 방청자가 몰려들엇다 한다.

勃發하는黃金熱로 人命犧牲二百餘

爆發藥使用으로이런事故激增

警務局에선取締官新設

최근 조선안에는 광산업이 비상히 발흥하고 또는 토목(土木)사업이 증가하고 잇음을따라 폭약(爆藥)의 사용량은 해를따라 늘어가고 잇는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야 작년중 전조선의 폭약 유사용소비는 실로 四十만六천四백四十二관(貫)으로 전년도소비량 二十八만七천五백三十九관에 비하면 十一만八천九백四관이 증가하엿다.

그반면에 사고(事故)도 비상히 늘어 一백二十四건으로 사자(死者)가 三十八명, 부상자 一백六十七명의 다수에 달하엿으며 사자 廿五명 부상자七十六명에 비하면 전년의 六十八건, 사자 廿二명 부상자七十六명에 비하면 모다 증가하고 잇다.

이에대하야 경무국에서는 취체대책을 강구하기로하고 위선폭약류 취체규측의부도 개정하고취체관(取締官)도 증원하기위하야 전임(專任)기사, 속관등을 각도에 배치하고저 명년도 예산에이에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엿다 한다.

下水道에銃彈

八일오후 영시 三十분경에 부내 보정五정목 三十八번지 송강좌임(松岡佐一)의 집 하수도를 소제하던중 동하수도속에서 보병총 총알 三八식 보병총 실탄五발을 발견하엿다는데 이보고를 받은 소관 본정서에서는 방금 그출처를 조사중이라고 한다.

消防隊에도疑獄!

本町署에서四名取調 內容은公金不正消費

九일 아침부터 부내본정경찰서에서는 돌연히 긴장하야 경성소방소(京城消防所)의 감부나인 좌죽소태랑(佐竹小太郞)외에 도대(隊)의 대식(大石) 전중(田中) 등을 소환하여다가 엄중히 취조를 하고잇엇다.

그사건의 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치고있으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동서에서는 이전부터 전기 경성소방소에 공금소비사실이 잇는것을 탐지하고 이래 극비밀리에서 내사중이든바 최근에 이르러 확고한 증거를 얻엇으므로 그와같이 취조중이라는데 사건은 취조에따라서 더욱 확대되리라한다.

公益質屋貸出

六월중 경성부 공익질옥의 대출상황을 보면

	質入人員	貸出金額
東部質屋	一,一二三人	一八,六五七.〇〇
西部質屋	一,一三二	一五,六三九.〇〇
計	二,二五五	三四,二九六.〇〇

永同"赤盟"求刑 初審보다全部重刑

一審最高四年이五年으로 言渡는來二十日에

【충북 영동 농민조합 적우동맹(永同農民組合赤友同盟)】사건의 피고 장준(張俊), 최학흥(崔鶴興) 등 十一명에 관한 치안유지법 위반과 출판법위반사건의 공소공판은 九일 오전十시 경성복심법원 제二호법정에서 소야(小野)재판장의 심리로 부전(富田)검사의 입회로 개정되엇다.

지난 六월 二十일 동법정에서 열린 공소공판에 계속심리를 하여오든 이 공소공판이 개정되엇으므로 즉시 심리를 마치엇는데 지난 九일 오전十一시에 이르러 피고들의 사실심리를 마치고 부전검사의 구형이 잇엇는데 전피고들의 일심형보다 모두 중한 다음과같은 구형이 잇엇다.

檢事求刑
崔鶴興……五年 懲役
張 俊……五年 懲役
秋敎慶……五年 懲役
金台洙……五年 懲役
孫順興……五年 懲役
金斗洙……四年 懲役
金容政……四年 懲役
李義善……四年 懲役
閔工鎬……四年 懲役
崔顚根……三年半 懲役
閔元植……三年半 懲役

그리고 언도기일은 오는 二十일이라고 한다.

弑父嫌疑로獄살이八年한 李洙偉事實審理決定

死線에서生路로나가게될가 公判期日은아직未定

一심二심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八년의 기나긴 세월동안 신무의 큰죄명을쓰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고잇는 [illegible]

砂金潛採嚴禁

조선에서의 사금(砂金)의 도채(盜採)에 대하여는 종래 당국에서도 궁민구제(窮民救濟)의 미명 밑에서 비교적 관대한 처치를 하야왓다.

그런데 이사금채취에 의하야 천(川)과 치수(治水)에 비상한 악영향을 미치게하므로 총독부에서는 사방, 하천기타의 구제사업 [illegible]

染病擡頭

금년봄이래로 전조선에 유행하야 대대적으로 유행되고잇는 유행성뇌척수막염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머리가수어지기시작하엿다한다.

지난一일이래 七일까지의 환자통계는 경기(京畿)에서 발생二명기타 四명밖에 아니되엇으며 一월이래의 누계는 三백九十七명으로 그중에서 사망자가 一백八十六명인데 현재환자는 五十七명이라한다.

그리고 두창(痘瘡)은 지난주의 발생환자가 五명인데 이것을 一월이래발생한 환자누계는 三백五十五명으로 그중에서 八十四명사망하엿다.

모던留置場 京畿道에서增築

外國人用의寢臺設備

남방장치로페치카도놓고

경기도에서는 총독비七만원으로 전조선에제一가는 유치장을신축키로 계획하고 명년도예산에요구키로되엇다.

그내용으로 철근콩크리트 二층으로 계상되게하야 광을 건축하는데 이방에수용인원은 十이며 초계二백八十인의수용을 계하고 겨울에는 남방장치를하야 페치카도 설비하며 외국인을 용한 침대장치도 비치키로 되엇다한다.

현재의 유치장은 구한국시대에 형사취조실이든 것을 약十년전에 유치장으로 고치어 감방八개로써 파八十명만을 수용하야 왓고그설비가 극히불완전하야 위생상으로나 기타로보아 노후하기 짝이없는 것이엇다 한다.

그반면에는 천후가 끄부지못한 파계로 장진부사(長津府使)저리 (赤痢)병등이 대두하는 원인이되로이반으위생 특히 유치장의 인권문제의한이줄게다한다.

電車事故

九일오후영시 五분에 원정(元町)二정목 七十一번지 앞 도로에서 경전一六三〇호가 천대전(千代田)택시부자동차와 충돌되어 전차는 九원어치 자동차는 三十원어치 가량되는 손해를 보앗는데 원인은 자동차가 뒤길로서다가 충돌함일이라고 한다.

一日溺死三名

◇……부내옥천동(玉川洞)一백十一번지의 최용식(崔龍植)(一二)으로人인 오후四시五十분경에 한강인도교(漢江人道橋)밑에서 조선배를타고 놀다가 노가 떨어지는통에 빠저무참이 죽엇다고한다.

◇……부외신당리(新堂里)三백三十一번지의三호에 사는 김두석(金斗錫)(一七)은 八일오후영시五十五분경에 부외한지면 수철리(水鐵里)二번지 앞 한강에서 낙시질을하다가 빠저 죽엇다고한다.

◇……부내수창동(壽昌洞)二번지 김문성(金鳳成)(一七)은 八일오전十一시경에 학교동무(李□□)외五명어 부내□□ 한강가에서 목욕하다가 빠저 죽엇다고한다.

對京城野球 早大全勝

早8鐵0 早大對全京城(鐵道)野球戰은 早大第一戰을 이긴뒤 때는해더로서 同日 午後 三時五十分 京城運動場에서 審判(球)石井 (壘)佐武 田代三氏、早大先攻으로 開始한바 早大의 猛烈한 一、三兩回에 各四點씩을 先取함채로 結局 八對零으로 早大 大勝하엿다. (閉戰 六時四分)

【備考】 二壘打 永田、長野、永澤△併殺(鐵)上野—佐藤—天野 (早)佐武—小島—島津二次、小島—島津

鐵道		早大(先)
7 白石	30打數38	5高須
7 千田	7安打13	6佐武
65 龍崎	0犧打2	4小島
8 河野	7三振0	7長野
9 永田	2四死6	2鶴岡
3 天野	0盜壘1	8天野
2 中村	4失策1	9永澤
4 佐藤	5殘壘11	1阿部
6 岡本		3島津
5 尾崎		
1 森(田)		
1 上野		

得點 早 404 000 000=8 / 鐵 000 000 000=0

早大7A遞信4

早大對遞信野球戰은 八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早遞(球)中島、岩田 (壘)三番判、遞信先攻으로 開始한바、七A對四로 早大勝 (閉戰三時三分)

【備考】 二壘打藤井、島宮、北村△捕逸石井

遞信(先)		早大
5田 代	31打數26	6手 島
4秋 原	8安打 6	4今 木
8光 武	1犧打 2	8原 谷
9藤 井	3三振 2	2鶴 岡
7島 宮	6四死11	7林 見
3佐 藤	0盜壘 0	3岡 山
6西 田	2失策 1	9橫 中
1高 野	7殘壘 7	1田 原
1北 村		1桑
2石 井		5小 林

得點 遞 010000300=4 / 早 02200012A=7A

早大5A府廳4

早大遠征軍 對京城府廳 野球戰은 七日 午後三時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審判(球) 永田、安田(壘)三氏 審判、府廳先攻으로開始된바 結局 五A對四로 早大勝 (閉戰午後五時五分)

▲兩軍 投捕(早)、大下、桑原 藤堂(府)、柴田 平瀨

得點 府 100000030=4 / 早 21001001A=5A

庭球選手權 中央豫選戰結果

京日、每申主催의 第十一回庭球選手權大會 中央 豫選은 八日午前九時부터 京城 運動場에서擧行한바 第四回戰부터의 成績은다음과같으며 總督府의 [illegible]、[illegible]組가 優勝하엿다。

【第四回戰】
○[illegible]4—2[illegible]×
○[illegible]4—[illegible]×

【準決勝戰】
×[illegible]1—4[illegible]○
×[illegible]1—4[illegible]○

【決勝戰】
×[illegible]0—4[illegible]○
○[illegible]4—3[illegible]×
×[illegible]4—2[illegible]×

大學卓球部 京阪遠征

十日夜京城出發

京城帝大卓球部에서는 京都와 大阪地方에 遠征코저 十日午後九時四十分 京城發列車로 [illegible] 行한다는데 一行의 [illegible]은 다음과같으며 [illegible] 時二十五分 [illegible]한다。

◆一行의 [illegible]

△主將 金□泳 △[illegible]村、鄕崎、白井澤、阿部、大山、鄭安雄

相對팀 京都帝大、大阪帝大와 京城帝大가 定期對抗戰을 行하고 同志社大學、關西大學、全大阪OB、大阪京阪俱樂部와 對戰

東西戰에는 朝鮮서二名參加

그리고 七月十四[illegible]部에 擧行되는 [illegible] 對抗戰及 全日[illegible]에는 朝鮮[illegible] 錫泳 京大[illegible]이 西日本軍의 [illegible]에參加케 되엿다한다。

京都帝大上野、福森、矢木、鈴木▲同志社大學 山下、□村▲神戶商 大渕▲大阪外語[illegible]學院 奧山、神、日臣、林、[illegible](以上十六名)

京保校內卓球戰

京城保育學校 綠羊會主催、第一回 校內卓球大會를 七日午後二時부터 同校大講堂에 行한바 決勝戰績은다음과같으며 李順伊가 優勝하엿다。

×張孝□ 〇—二 李順伊〇

都市對抗野球 豫選抽籤

都市對抗 野球大會의 朝鮮代表選拔大會는 十三、四、五의 三日間 京城運動場에서 行할터인데그 抽籤은 다음과같이 決定되엿다。又大會 入場料는 學生 二十錢 普通三十錢 내트뒤 四十錢이다。

▲十三日午後四時半
全二新—全全州
▲十四日午後一時
全京城—全咸興
▲午後四時부터
第一日勝者—全大邱
▲十五日午後二時부터決勝戰

各地天氣 (七月九日午前六時)

	平壤	新義州	仁川	京城	全州	木浦	大邱	淸津	雄基	城津	元山
天氣	曇	曇	雨	曇	晴	雨	晴	曇	曇	曇	曇
昨八日氣溫 最高	二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最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曇驟雨模樣

天氣豫報

七百六十미리의 低氣壓은 滿洲에잇어 東北으로 進行하고 七百六十미리의 高氣壓은 日本海上에 잇다。中部朝鮮은 大槪 曇天이되고 其他地方도 不安定하다。明日도 曇雨가잇을 模樣이다。

在滿補充部隊 今日京城驛通過

재만○○부대보충으로 새로이 파견될 장병○○○명은 九일오전 八시二十五분착 봉四十분발 열차로 경성역을통과하야 북행하엿다.

무슨痛이든지 三十分以內에 즉치합니다

彼氏는어째 結婚을回避하여?

男子로나서男子가아니다

兩親은애를써서 [illegible]

男子一生의責務 [illegible]

無代寄入說明書 男子의 生理的新知識詳細、多數讀者의 希望에 應하야 [illegible]

日獨佛專賣特許 名譽金牌受領 醫學博士 太千氏

ホリック眞空水治器

一日一回十分間

新藥株式會社 [illegible]

리베-루

림질 初驗速效

內服數時間後에靑色尿가나오며 尿道의炸痛化膿하야新舊淋疾이速效합니다 그럼으로止痛이되고痛症이速效함

갓꺾은 장미꽃香내그대로

新鮮한香氣 ローズ仁丹

고무신은거북선

登錄商標 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廠 電話東一二三九

별표고무신

별표 고무신 일부로 튼튼 일제로 기억하시오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南朝鮮連日曝陽

農作物全滅狀態 飮料水까지斷絕

三할가량 심은모는 전부고사 郡、面에선祈雨祭準備

【선산】 경북 선산(善山)군(郡)에 보지못한 한발이 계속되야 각면이 전부 [illegible] 뿐아니라 이앙도 三할에 불과하므로 대부분 준비중이라 하는 본보에 가보하바 이어니와 [illegible] 에는 九十六호의 [illegible] 아니라 거게 고사지경에 [illegible] 이 음료수(飮料水)까지 단절되어 [illegible] 군당국과 각면당국에서는 미신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장봉산(?)에 [illegible] 다보이고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기로 방금준비중이며 [illegible](面)에서는 불일내로 기우제를 지내리라고 한다.

丹城도祈雨祭

【하천】 경남 단성(丹城)지방에는 한발이 연일계속중 [illegible] 열도는 九十九도나 올라가게 되며 허재로는 비나릴가망이 보이지않으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고대하고 있는농민은 재래의 인습으로 무제(?)이든 백마산(白馬山)에 올라가서 안장하고 수색하며 입때 줍싸흔 훈련 기우제를 하고잇다 한다.

長城百四度

【장성】 전남장성(長城)지방에는 七월을 들며서부터 혹서가 습래하야 二三일전부터 화씨九十여도를 오르나리더니 지난六七일에는 더욱 래심하야 백四도까지올라 그늘에 보기드문 더위라하며 기다리는 비는오지않고 더위만 계속되다하야 일반은 극도의 불안에 싸여잇다고 한다.

陝川百三度

【합천】 경남 합천(陝川)은 근일에 드믄 지리한 한발이 연일계속하야 이앙은 불과 四할밖에 못한 이때 근교의 [illegible] 작물은 말라서 모판의 군업농사는 [illegible]에 빠지 [illegible] 이라하며 작년은 수해 금년은 한발 충재등 二중三중의 참담한 재앙을 받게되는 일반농가에서는 생사경비에 불과한 농파경제에 이같은 불운이 계속되므로 일반 인심은 극도로 흉흉하다하며 연일 더위는 백三도를 돌파하야 피염에 시달린 일반은 비오기만고대하고 잇다한다.

曝陽繼續으로 海産物도不獲

邑에서는 급수를 제한해 統營沿海漁民도打擊

【통영】 남조선 一대에 계속되는 한발은 아즉도 계속됨을 따라 더위는 화씨백여도를 돌파하는 혹서에 통영(統營)지방에서도 한발로 말미아마 이앙못한논은 물론 이거니와 이미 이앙된 논에는 균열이되고 모두 고사되어 잇는 상태로 농가이상은 참혹한 이때에 통영읍 상수도계에서는 수원부족으로 말미아마 급수를 제한하야 통영 三만 시민은 물 기근을 연상하게 되고 더욱 통영 지방은 남단 해안인 만치 해산물을 중시하야 지방경제가 좌우되고 잇는 주민들은 직접 간접의 이해관계를 가저잇는데 금번 한발로 인하야 각종 해산물이 잡히지 아니하므로 각도서 어민들까지 대혼란중에처하여 잇다고 한다.

雄基土地價狂騰

白砂地每坪四十圓

◇읍유지 공매 입찰의 가격 最低價十八圓以上

【웅기】 나진(羅津)이 발표된 대한동향으로 결정되자 웅기(雄基)가 그자매항(姉妹港)으로 장래에 중대한역할을 하게될것을 목표로 재작년이래 토지값이 폭등되든바 십배의 등귀를 보이고 있는바 七월六七일간에 읍유매각지(邑有)五十三필 四천三백五十평을 공매에 붓치며 청하의 六십원 一(一)[illegible] 일오전十시에 수백명 원매자가 쇄도하야 우선 三十필을 공매한바 백사장(白砂場)한평에 최고四十二원 十전 최저 十八원 六전으로 낙찰되엇는데 매수자의 구별은 조선인 十二명 일본인 十七명 중국인 一명이라고 한다.

[illegible] 다는데 사실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유씨가 그날 아츰에 앵정신태랑(櫻井十太郞)상점에 사탕값으로 十원지폐를 주엇이 위조지폐라고 허위고발하야 그같이 위중한 취조를 받게되바 그지폐는 사상아방지사에 감정하엿는바 분명한 일본은행권으로 판명되어 경찰은 실수하제되어 무사하게되엇고 앵정(櫻井)상점의 고객에게 비난을 받고 잇다고 한다.

表忠寺重建 落成式擧行 陰六月十五日

【대구】 경북대구표충사(表忠寺)는 대구의유명한 사명대사(四溟大師)를 제향하든 데로서 [illegible] 하야 [illegible] 하는 [illegible] 년에 [illegible] 되든중 중건하게 되엇는바 [illegible] 음六월十五일에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리라고 한다.

[illegible] 아동에게 농사 지식을 가르키고 또한 근로자 습성을 길러줌이 시이에 적정한것이나 전기와 같은 파도노(?)는 반하해서 피처게 되는것뿐이라하야 일반 학부형은 학교당국에대한 비난이 자못 높다 한다.

二千餘名參集裡에 百濟橋初渡式

扶餘白馬江交通至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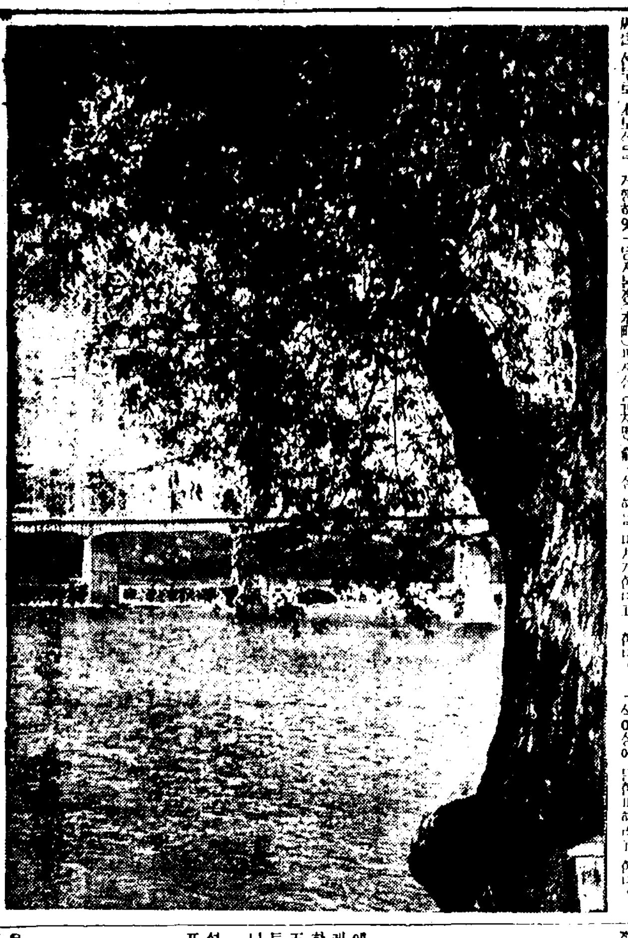
【강경】 충남 부여 규암진(扶餘窺岩津)에 가설된 백제신교(百濟新橋)는 도지방비와 당지유지의 협력으로 지난二월부터 기공되어 지난七일 오전十一시에 도표식을 거행하엿는데 관민 二천여명이 집합하야 김창한(金昌漢)씨 선두로 초도식을 거행하엿다는바 이제부터는 백마강(白馬江)을 건너는 교통이 편리케 되엇다고 한다.

僞造紙幣虛僞告發

【강경】 충남 강경 경찰서(江景署)에서는 지난 六일 오전 八시경에 당지본정(本町)과자상 유지명(兪[illegible])

生徒過勞에 學父兄非難

【고원】 고원공립보교(高原公普校)는 요지음 실습비를 사용하고저 전교아동에게 풀을베게하는바 七八세 아동들도 一하날 [illegible] 지 과료를 시키는 폐단이잇어서 무더운 고열이 이때에 도리혀 보건상 해를 미치게한다고 한다.



◇山家카메라巡禮 綠陰下의白馬江

元排水口遮斷으로 被害面積七、八町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해 高原平野浸水被害後報

【고원】 고원평야(高原平野)의 三개리가 배수구미비로 수수화되엇다 함은 기보하엿거니와 그피해면적은 실로 [illegible] 하야 비도수되어 보지못하고 못(池)들이 무게되 수답이 六정보 이상이며 곳에 실은 보답(洑田)이 약一정보이고 모판에 씨뿌린 식수만도한 十식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외같은 큰 피해를 미치게 된 최대원인으로 말하면 덕지강(德池江)제방이 동 평야를 [illegible] 하야 수十년전부터 내려오든 원 배수구를 차단시키고 지형은 낮으로 따로 일수하게됨 파계상 배수하는 솔도가 지목함뿐아니라 수조보(水組洑)에서 술여는 잡수가 정반미레로 차입치는 까닭이라한다.

이에대하야 피해민들은 각관계당국에 그피해보상을 요구하엿으나 서로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일 가짐으로 편황군, 면당국에 진정하게되어 방금 대책을강구중이므로 그귀결이 주목되는바라고한다.

報恩、沃川間 錦江架橋運動

양군에서 대표자 모이어 期成會組織코活動

【보은】 보은옥천(報恩沃川)간에는 금강(錦江)이 가로놓여 종래에 도선으로 겨우교통을 연락하든중이데 장마가 질때에는 四五일은 배를 건느지못해서 교통이 두절되어 양군민의 곤통이 지아니하다한다.

그리하야 양군민가에는 교량가설을 기성코저 지난七일 양군대표四十여명이 동도선장에모여 금강가교기성회(錦江架橋期成會)를 조직하엿다는데 동회에서는 금강가교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야 군당국교섭과 도당국등에 부원 에 진정하라는데 보은측대표위원은 아래와갓다 한다.

朴鎭謨、金敎寶、鄭寅弘、金在承、李鍾來、石山、山上、佐藤新助、鄭佐平

大邱府營뻐스 兩線夜間運轉

【대구】 연일해도이상의심한혹서에 시달리는대구지방에서 야간에 [illegible]을 비롯이라도 차저려하는 [illegible] 이라 하여 대구부영뻐스에서는 시외동촌(東村)신판 수영장등 양선의야간운전을 아래와같이 한다고한다 ◇東村線(大日午前)

同 八時半	同 九時	同 十一時	同十二時
同 九時半	同 十時	◇水泳場線 (十日以後)	
同 十時半	同 十一時	밤十時半까지	

大邱發 午後七時半 東村發 午後八時

安邊柯坪里學術講習所開會式

載寧支廳移轉으로 土地價가暴騰

沙里院에一大活氣

【사리원】 황해도 해주지방법원 재령지청(海州地方法院載寧支廳)을 사리원(沙里院)으로 이전하기로 된다는 [illegible] 이미 보도한바와 같거니와 이 소식을들은 일반시민들은 가뻐마지않는 동시에 시내 토지와 가옥값은 수일전부터 급등하야 지번하여나 불경기인 하전매가 매우 많다고 한다.

東萊邑市場 移轉施設計劃

工費一萬七千圓豫算

【동래】 경남동래읍(東萊邑)의 五일시장(市場)은 아직도 시가지를 사용하고잇고 하등시장시설이 없으므로 일반교통 또는 주민위생상에 막대한피해 장해가잇어서 시장개설문제는 동래읍의 다년간현안이든바 금번에공비약二만七천원으로서 이전시설하기로 결정하얏다한다.

시장설계는 현재동래 제一보통학교기지 약三천평을 매수하야서 시장시설을하고 五일시와 매일시장을병영하리라한다.

自轉車取締厳 【평양】

평양 경찰서에서는 이지음 시내 각처에서 자전거 도난사건이 격증하므로 이것을 방지하고 도난품을 발견하기 위하야 지난五일 오전 十一시로 오후 一시까지 약 세시간 동안 시내각 요처에서 탑어나는 자전거를 一제로 검사하엿다 한다.

尹、許組優勝 【강계】

지난 五일오후부터 강계신상고등소학교(江界新尙高等小學校)코트에서 개최된 강계체육협회(江界體育協會)주최의 전강계개인정구대회는 성황리에 개최되엇는데 최후의 우승은 윤명수(尹明洙)허법일(許法一)조에게로 돌아 갓다 한다.

二千七百餘町步에 被害十八萬餘圓

未曾有의黃州雹災詳報

【황주】 황주군내에 내려싼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의피해가 막대하다함은 그당시에 보도한바 이어니와 이제 이것을 우박으로 인하야 피해당한것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아래와같다 한다.

種別	被害	被害額
粟	二二二〇町	二三〇七〇圓
黍	五二二町	五、三七五
大豆	一、一三九町	二九、四八六
小豆	五一一町	一八、一三五
稷	二、一九町	一〇、五六〇
陸稻	二六町	三、三〇八
棉花	五一町	二、六〇五
胡麻	二町	六四
蔬菜	一町	一五六
其他	一町	一七
合計	二、七五〇町	一八六、三四六

【황주】 상곡면(?) [illegible] 등지에 [illegible] 하는 황리에 十一시 산회하엿다.

會合

◎安邊郡內各官公署主催 環境會 七月八日安邊讀城里川邊에서開催

◎金剛記念定總 來十五日內金剛에서開催

◎慶興基督聯合會定總 去四日夜古城禮拜堂에서開催

消息

◎沈雲澤氏(湖南郡農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湖南支局來訪

◎平壤基督靑年會 지난六日府內巡營里 大成學友會館內로 移轉

◎同業朝鮮日報社平壤支局 지난六日 府內巡營里 大成學友會館內로 移轉

音樂의밤·盛況 六일의안변에서

【영변】 지보 영변분국사 주최 외천양대(?)에 주최 본보지국후원의 제一회「음악의밤」은 지난六일오후九시 성외인 영변공회당(?)에서 개최하엿다. 음악회는 정각전부터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성공리에 폐회하엿다.

密造酒三百件

一주일동안 관내를 수사 晉州署管內에서發覺

【진주】 진주 세무서(晉州稅務署) 관내에서는 지난六월十五일부터 동二十三일까지 八일간 무서구내 밀조취체를 단행하엿든바 여러가 [illegible] 무성사(?) 그간 검거된 건수는 총三백여건에 달하여 이를 군별로 하면 사천(泗川)의 九十九건 사천(泗川)이 八十건이라고 한다.

하여가 잇엇는데 의외에도 규흥위반의 자전거 一천六백 六十여대를 발견하게되엇다. 그중 무호감찰 사용이 一천 五백대 기계 불완전 한것이 백대 경종 불비된것이 六十대 도난품이 二대라는바 앞으로는 一층 자전거 취체를 엄중이 하리라 한다.

漢川支流水로 兩里民紛爭

물을 서로 아니받으려고 咸州雲南面堤防問題

【함주】 함주군 운남면 구단리(咸州郡雲南面舊端里)보고리(保古里)사이에 한천(漢川)이라는데 가잇는데 그내의 지류가 보고리로 흐르나려 배여호가옥이 침수됨뿐만 아니라 六十여 정보되는 전답이 역시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까닭에 지난 장마때에 보고리주민들이 자뮤를 막어버렷는데 구단리주민들역시 흘러든 물이 한꺼번으로 몰려드며 四十여정보되는 전답과 수十호의 가옥이 물속에 들어가게 된것이라하야 재방을 트고 물의 분류를 [illegible] 하여도 하지 보지 못하여 해여잣다는데 이문제의 해결방안은 한천강역 [illegible] 제방을 견고히 방수하는 도리외에 다른 묘책이 없다는데 이것은 다대한경비를 요하는 관계로 도당국이 제방공사를 하나로취급하여야 할것이라한다.

仁川臨海校 十七日에開校

【인천】 하기에만 개교하는인천임해교(仁川臨海校)는 오는十七일 월미도 해수욕장 사정(砂場)에서 수업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개교를 하리라한다.

黑頭巾 [30]

尹白南作 李靑田畵

三、偶然 八

자기방으로 돌아온 춘상은 [illegible] 몇달이나 [illegible] 아씨 [illegible] 사자 의우에 누워 [illegible] 에 [illegible] 부대가 조가리 [illegible] 다가 [illegible] 엿다.

육체상으로 정신상으로 몹시피곤한 춘상은 누어서 생각을 하자 눈이 감기 [illegible] 어갈수 없이 기어 [illegible] 게 누기시작하니까 [illegible] 에 [illegible] 선이되엇다 하고 [illegible] 을 [illegible] 치고 [illegible] 듯 깊은잠에 빠지고 말엇다.

얼마를 잣는지 모른다. 어렴풋한 잠속결에 밖에서 떠들석하는 소리와 떨거지하는 그릇소리가 들리어 춘상은 정신이 번쩍나 눈을떳다.

안사채에 반짝비친 아침해는 발이 산사하야 [illegible] 함하게 해가 비치는 [illegible] 퍼 [illegible] 어제처고 [illegible] 하면서도 [illegible] 차저보앗다.

[illegible] 보이지않는다 그대신 [illegible] 주인 사공이주가 세수를하며 [illegible] 소리인지 [illegible] 무엇을 [illegible]

에 놀라지않을수없엇다 동시에 [illegible] 할수없는 [illegible] 기신 지난밤 춘상의 [illegible] 로얼하면 아침에 [illegible] 나시 [illegible] 것이엇다.

싸어가다가 [illegible] 에 눈치를 [illegible] 하든 [illegible] 솟 [illegible] 에 지나고잇는 [illegible] 위험도하고 [illegible] 로 매수하도 [illegible] 야 기어코 [illegible] 의 [illegible] 한다는 [illegible] 이엇다.

그것이 [illegible] 녀자 [illegible] 어지고 [illegible] 엿다.

「원수의잡 원수의집」

하고 몇번이나 속으로 자기의 사가 [illegible] 을 두다렷다.

그러나 이제는 아우리 [illegible] 여기를 [illegible] 하고 [illegible] 을 받고는 [illegible]

주모 [illegible] 는 춘상의 눈치 [illegible] 서 [illegible] 에 [illegible] 가 [illegible] 춘상의 [illegible] 하엿다.

[illegible] 날이 [illegible] 사람은 [illegible] 소리가 [illegible] 상의 [illegible]

춘상은 [illegible] 하고 [illegible] 하고 [illegible]

「예구 손님이 인제 이러나셧군 평안히 주무섯습니까 방이나 [illegible] 시 차지않어요」

「아요 찬지 [illegible] 정신없이잣 으니까요」

「아침은 어떠케허서요」

「감아하게슈 세수나하구 해장이나 [illegible] 먹어야지」

하고 개집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앗다 아침스런 그의입에서지 난밤의 흉한 치레의 소리를 차저볼 수는 없엇다.

시방작자 선주는 배수건으로 저 진덕길을 북북 문질러닷으며

「그사람 아침이나 먹구 올라가 라구 허지요?」

「그럿다우 가위 느저으니 아침 이나 먹구가라구했더니 세수도 않구 나서는 어찌허우 어제 늦도록 술을먹구는 저손님방에 가서 자더니 아침에 일즉어니 나서는 당신이 아마 일즉어니 나려온것이 [illegible] 가서 기다리고 잇다가 건너오지도안 되닷어 건너 달라구해서 가 겟다구 힝허구 나가버립디다 그 런」

「아니게 아니라 일즉 가야지요 늦도 늦게 왈라잣다기는 헐 하고 [illegible] 치게되거든 흔 하고 가스스러운 계집의꼬 [illegible] 하고 [illegible] 속으로 [illegible] 그 [illegible]

[illegible] 나시 방을 [illegible] 어서도 어려 지생각을 하엿다.

제일차의 염통— 다시 일기어 려운 [illegible] 그렇다고 이 좋은 기회를 영영노 치고보면 다시도 어떠한기회가 오리라고 믿을수없는일이 아니가

이번에는 주모의서방자 선주 라워인을 매수해보기 이러한 생 각도하여보앗다. 그러나 그자는 의 성인것이더지 지조를 헤아 리지않고 덕식 말을 부첫다가 도 리어 이런 [illegible] 하면 [illegible] 즉 성공을 [illegible]

밥먹기에 상당히 오래시간이 지낫다. 생각하는 [illegible] 하군 하저까라 마양 노리지거리 끄는 상을 [illegible] 다 그리고는 여름 [illegible] 으로 행장 을차렷다.

이때에 안시방에서 무엇을 다 투는소리가 들린다.

「글세 이런데 이년의 [illegible] 몸 몰려야 [illegible] 다 시 [illegible] 를 [illegible] 아라 [illegible]

「못할것으로 어째 [illegible] 으로 내 가 [illegible] 사람이라구 [illegible] 을 사람으로 다 [illegible]

「잔소리말 [illegible] 업시 내속 상하게 [illegible]

아니며 [illegible] 에서 주사가 를 [illegible] 다 [illegible] 면

[illegible] 께는 [illegible] 속 [illegible] 성 [illegible] 다

泄瀉腹痛 腸胃疾患에

泄瀉、腹痛、腸胃加答兒의速治良劑

健胃固腸丸

一、本劑는 [illegible] 한 經用이 잇는 胃腸藥으로 瀉腹痛胃腸病에 代表的名藥 입니다

二、本劑는 [illegible] 팔니가 때문에 [illegible] 때에 [illegible] 잇사오니 사실 때에는 特히 [illegible] 指名하여 주 요

藥價 二十錠入 五十錢 一圓 二圓 三圓 五圓 十圓

小兒에게는 特히 小兒用 [illegible] 이 잇슴

服用하기 便利한 健胃固腸錠

泄瀉腹痛에 一回三錠 腸胃衰弱에 一回一錠

錠劑의藥價改正

價格半減에相當한 內容增量을斷行한

新藥價

金參拾錢(舊十二錠入)은二十一錠入

金五拾錢(舊二十一錠入)은四十八錠入

金壹圓(舊四十八錠入)은百二十錠入

金參圓(舊二百錠入)은五百錠入

大阪市東區道修町 鹽谷固春堂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互惠主義에 依한 關稅引下 多數商品에 可能

米新通商政策의 一擧兩得의 對策

議會에 依하야 米國 政府는 外國과의 互惠協定交涉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였다. 이것은 所謂 互惠通商協定法案이 最初의 것으로 成立된 것이다. 큐바가 米國工業品及 農産品의 關稅를 相當程度로 引下하면 米國은 큐바糖에 對하야 現行 關稅法에 依한 法定稅率 最高率 即 四割까지 引下하라는 것이다.

○—○

只今 互惠通商法案의 由來와 그 提案 理由를 各 方面에 들어보건대 米國에서는 이 互惠法으로 [illegible]

[illegible]

二千萬圓資金으로 鍾紡、朝鮮內進出

永登浦에 總本部、各地에 工場設置

朝鮮紡績界의 覇權 割策

日本內地 紡織業界의 [illegible] 鍾紡에서는 [illegible] 永登浦에 總本部를 두고 [illegible] 光州、全州(全北)、元山(又는 咸興)의 各地에 工場을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illegible] 約 二千萬圓의 運用을 [illegible]

仁川在米續減

本月七日現在 仁川市內 在庫米는 左記와 如하다

一、玄米	六三三、一八四叺
一、白米	一七一、一五一
一、正租	六〇、一二三俵
一、同	四〇、五九五叺
一、大豆	二九四
一、小豆	一八〇
一、小麥	三〇俵
一、胡麻	七〇叺
一、綠豆	二五
一、白麥米	[illegible]

米生産消費激減

日本絲는 二割弱의 減退

生絲不況의 根本을 如實表現

昭和八年七月로부터 九年六月까지 一個年間(米國生系年度)의 米國 生絲輸入及消費高는 모다 激減을 示하야 生絲界不況의 根本을 如實히 表示하얏는대 日本絲는 五萬五千俵 (一割) 減少이고 [illegible] 歐洲絲는 [illegible] 中國絲 [illegible] 一方消費高를 보건대 日本絲는 九萬三千俵(二割弱) 歐洲中國絲十一萬四千俵(二割七分)의 大激減이어서 [illegible] 如左하다 (△는 減印)

輸入	昨年度	前年度
日本絲	[illegible]	△[illegible]
歐洲絲	[illegible]	△[illegible]
中國絲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消費	昨年度	前年度
日本絲	[illegible]	△[illegible]

對外爲替市況 (七月九日)

▲朝銀建値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十三
對米 買 二十九弗十六分十五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八
對英 買 一志二片四分一
▲大阪建値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七
對米 買 三十弗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分七

金組聯合會의 殖銀預金利下

—四分三厘로 內定—

金融組合聯合會의 殖銀에 對한 定期預金利率은 [illegible] 四分三厘로 引下하기로 內定되엿다 [illegible]

決濟銀行理事會 準備會議開催

[illegible]

貯銀定時總會 取締役二名補充

貯蓄銀行에서는 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illegible]

共濟無盡据置

[illegible]

增稅는 新藏相의 持論

財界一部增稅懸念

一擧敢行與否는 財界人의 注目處

樂觀論도 相當有力

[illegible]

朝郵重役會

朝鮮郵船에서는 [illegible]

東京、橫濱의 (五月中) 朝鮮米移出激減

朝鮮米의 品貴狀態로

朝鮮米協會調査 [illegible]

	六月中	前年同月比較
玄米	三、六九五	△七四四
白米	一七二	△一、四二七

東一銀行 臨時重役會

頭取辭任問題로

東一銀行에서는 [illegible]

喜鋼管의 朝鮮進出計劃

姉妹會社創立?

[illegible]

局鐵朝鮮米發送 (七月八日)

[illegible]

六月中朝鮮米協會 東京斡旋量

[illegible]

今日의 市況 ◆七月九日◆

株式 (單位十錢)			
朝新	[illegible]	後場止値	前比較
東新	[illegible]		
期米 (單位錢)			
正租 (仁川)			
正米 (三等單位)			
商品 (單位十錢)			
京城	[illegible]		
仁川	[illegible]		

時勢와 市況

株式 商勢 氣崩

前場暴落

[illegible]

後場續弛

[illegible]

東新大新暴落 日産의 將來性如何

[illegible]

新內閣에 對한 觀測이 區區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實物賣買價前場

[illegible]

朝取主要株取調

[illegible]

朝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朝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illegible]

後場低落

[illegible]

往來波瀾激烈

[illegible]

米豆餘墨

[illegible]

朝米 前場波瀾 波瀾裏 瓦落

[illegible]

取引所聯合會

[illegible]

正米 各地商況

堂島前場情報

[illegible]

各限値合

[illegible]

斯近動靜注目

[illegible]

康益夏商店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

海外經濟·金融及商品市況

[illegible]

京城不變 / 仁川不變 / 南浦反尻 / 群山銳調 / 木浦保合 / 釜山漸騰 / 大邱正米

株式 九日

[illegible]

期米 九日

[illegible]

金 金 高價買入 京城明治町一丁目五五 三澤商